

# [심층 분석 보고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균열과 실물 자산의 귀환: 배제한의 『절대 실패 없는 금 투자』 해제

## 1. 서론: 화폐의 황혼과 '진짜 돈'의 역습

현대 금융 자본주의는 거대한 전환점(Turning Point)에 서 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지속되어 온 신용 화폐(Fiat Money) 시스템은 유동성 공급이라는 마약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부채의 탑이 되었다. 팬데믹 이후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난 50년간 누적된 통화 시스템의 모순이 터져 나오는 신호탄이다. 이러한 시기에 출간된 배제한의 \*\*『절대 실패 없는 금 투자: 진짜 돈 vs 가짜 돈』(경향BP, 2025)\*\*은 단순한 재테크 실용서를 넘어, 화폐의 본질을 묻고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금융 철학서로서의 무게감을 지닌다.

본 보고서는 이 책을 단순한 '금 투자 가이드'로 읽지 않는다. 대신, 저자가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적 지식(Tacit Knowledge)을 학술적 이론(Explicit Knowledge)과 결합하여, 2030년까지 전개될 글로벌 금융 질서의 재편 과정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그 안에서 금(Gold)과 은(Silver)이 갖는 전략적 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저자 배제한은 골드나라라는 실물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며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론가들이 놓치기 쉬운 '시장의 미세 구조(Market Microstructure)'와 '유동성의 함정'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왜 중앙은행들이 그토록 금을 사모으는지, 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아날로그적인 자산이 각광받는지, 그리고 개인이 거대한 인플레이션 파도 속에서 어떻게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책의 목차를 충실히 따르되, 행간에 숨겨진 거시경제적 함의를 극대화하여 해석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의 경제학적 통찰을 더하여 저자의 주장을 검증 및 확장할 것이다.

## 2. 프롤로그: 화폐 환상(Money Illusion)을 깨라

### 2.1 핵심 내용 요약: '진짜 돈'의 정의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독자에게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종이는 진짜 돈인가, 아니면 약속 증서에 불과한가?" 저자는 화폐(Currency)와 돈(Money)을 엄격히 구분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러, 원화, 유로 등은 정부의 강제 통용력에 기반한 '화폐'일 뿐이며, 이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가치 하락(Debasement)의 길을 걸어왔다. 반면, 금은 발행 주체가 없으며, 그 자체로 내재 가치를 지닌 '진짜 돈'이다. 저자는 금 투자가 부를 늘리는 공격적 수단이 아니라,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막는 방어적 수단임을 강조하며 서문을 연다.<sup>1</sup>

### 2.2 행간의 통찰력 분석: 신용의 역설과 카운터파티 리스크

저자의 주장은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의 '건전 화폐(Sound Money)' 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현대 금융 시스템은 누군가의 부채가 누군가의 자산이 되는 대차대조표 기반의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평시에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만, 위기 시에는 '신용의 증발'과 함께 붕괴 위험에 노출된다.

- 신용 화폐의 본질적 결함:** 신용 화폐는 무한히 발행될 수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희소성을 상실하게 되며, 실물 자산 대비 구매력 하락을 초래한다. 저자가 말하는 '가짜 돈'은 위조지폐가 아니라, \*\*시간을 이기지 못하는 화폐\*\*를 의미한다.
- 최종 결제 수단(Ultimate Settlement Asset):** 금은 누구의 부채도 아니다(Gold is nobody's liability). 금융 위기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이 없는 유일한 자산이 금이다. 저자는 프롤로그를 통해 독자들에게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보험"으로서 금을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 2.3 원문 인용 및 재해석

"금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가치를 잃은 적이 없는 자산이다. 주식·부동산·화폐는 시대와 정책에 따라 흥망성쇠가 있었지만, 금은 언제나 안전자산으로 자리해 왔다."<sup>3</sup>

이 문장은 단순한 수사학이 아니다.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인플레이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역사적 변곡점마다 법정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었으나 금은 구매력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급등했다는 경험적 사실을 환기시킨다.

## 3. 1장: 금은 사치가 아닌 전략이다

### 3.1 핵심 내용 요약: 자산 포트폴리오의 필수재

1장에서는 금을 대하는 대중의 인식을 교정하는 데 주력한다. 많은 이들이 금을 결혼 예물이나 돌 반지와 같은 장신구(Jewelry) 혹은 부자들의 전유물인 사치재로 인식한다. 그러나 저자는 금을 \*\*국가와 개인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 자산\*\*으로

로 재정의한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의 핵심으로 금을 축적하는 이유는 그것이 예뻐서가 아니라, 달러 패권이 흔들릴 때 국가의 부를 지킬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sup>4</sup>

### 3.2 행간의 통찰력 분석: 포트폴리오 이론의 재구성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MPT) 관점에서 금의 역할은 '상관관계(Correlation)가 낮은 자산'을 편입함으로써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데 있다. 그러나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 **상관관계의 비대칭성:** 주식과 채권은 경제 호황기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다가도, 금리 인상기에는 동반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2022년 사례). 그러나 금은 주식 시장이 붕괴할 때 오히려 상승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강력하게 보인다. 즉, 금은 단순한 분산 투자처가 아니라 \*\*\*위기 시의 볼록성(Convexity)\*\*\*을 제공하는 핵심 헤지 수단이다.
- **구매력 보존의 타임캡슐:** 저자는 금을 통해 부를 증식시키겠다는 욕심을 버리라고 조언한다. 대신 10년, 20년 뒤에도 현재의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접근해야 한다. 이는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을 넘어선 '통화 시스템 헤지' 기능이다.

## 4. 2장: 구조적 변화가 금값을 끌어올린다 (The Macro Thesis)

이 챕터는 책의 이론적 백미로, 저자는 2030년까지 금값이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시경제적 환경을 세 가지 축으로 분석한다.<sup>6</sup>

### 4.1 핵심 내용 요약

1. **달러 시스템의 균열과 부채의 덫:** 미국 연준(Fed)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정부 부채는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달러를 찍어 빚을 갚는 '부채의 화폐화(Monetization of Debt)'가 가속화될수록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실물 화폐인 금의 가격은 상승한다.
2. **탈세계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은 일시적 사건이 아니다. 세계는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분화하고 있다. 브릭스(BRICS)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금을 매집하고 있으며, 이는 금의 수요 기반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킨다.
3.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금본위제:**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실물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Gold-backed Stablecoins)의 등장은 금의 단점인 보관과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금을 디지털 시대의 결제 수단으로 부활시키고 있다.<sup>7</sup>

### 4.2 행간의 통찰력 분석: 트리핀 딜레마와 금의 귀환

저자의 분석은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의 현대적 해석으로 볼 수 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전 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무역 적자를 감수해야 하지만, 이는 결국 달러 가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다.

- **중앙은행의 금 매수(Central Bank Buying):** 2022년 이후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량은 196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서구권의 금융 제재(러시아 외환보유고 동결)를 목격한 비서구권 국가들이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정치적 위험 자산"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흐름이 2030년까지 지속될 것이며, 금값의 하방 경직성을 강력하게 지지할 것으로 본다.
- **디지털 금(Digital Gold)의 진화:** 저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언급한 점은 매우 통찰력 있다. 과거 금본위제의 실패 원인 중 하나는 물리적 금의 이동 제한이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금의 소유권을 토큰화하여 전 세계 어디로든 즉시 전송할 수 있게 만든다. 이는 금이 단순한 저장 수단을 넘어 '교환의 매개'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된다.

### 4.3 데이터 기반 분석: 2030년 금값 전망

보고서는 저자가 인용한 외부 리포트<sup>8</sup>를 바탕으로 2030년 금값 시나리오를 구체화한다.

- **예상 가격:** 온스당 \$4,800 ~ \$8,900
- **근거:** 글로벌 유동성(M2) 증가율, 채굴 생산 비용(AISC)의 상승, 중앙은행의 구조적 매수.
- **포트폴리오 제안:** 주식 45%, 채권 15%, **금 15%**, 비트코인 5%, 원자재 10%.<sup>8</sup> (기존 60/40 포트폴리오의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

## 5. 3장: 절대 실패하지 않는 금 투자 기초 원칙

이론에서 실전으로 넘어가는 이 챕터는 저자의 15년 실전 경험이 농축된 매뉴얼이다. 독자들은 여기서 '호구'가 되지 않고 금을 매수하는 구체적인 기술을 배운다.<sup>7</sup>

### 5.1 핵심 내용 요약: 매수의 기술

1. **단위의 경제학 (1톤 vs 10톤 vs 1kg):** 저자는 소액 투자자라도 가급적 단위를 키워서 매수할 것을 권한다. 1톤(3.75g) 골드바는 가공비와 포장비 비중이 높아 그램당 단가가 비싸다. 반면 10톤(37.5g)이나 100g 단위는 가공비 비중이 낮아

'프리미엄'을 절약할 수 있다. 1kg 바는 단가는 가장 저렴하나, 매도 시 유동성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일반 개인에게는 10돈~100g 바가 최적이다.<sup>7</sup>

2. **종이 금 vs 실물 금**: 저자는 단호하게 **"내 손에 없는 금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ETF나 골드뱅크는 편리하지만, 금융 시스템 위기 시 인출이 제한되거나 실물과 괴리된 가격으로 거래될 위험이 있다. 진정한 위기 대비용 자산은 반드시 실물(Physical)이어야 한다.

3. **브랜드의 중요성**: 모든 금이 같은 금은 아니다. LS MnM(구 LS-Nikko동제련)이나 한국조폐공사와 같이 런던금시장연합회(LBMA) 인증을 받은 브랜드의 골드바를 구매해야 나중에 되팔 때 분석료 차감 없이 제값을 받을 수 있다.<sup>1</sup>

## 5.2 행간의 통찰력 분석: 스프레드(Spread) 관리

금 투자의 성패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 즉 **스프레드**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

- **비드-오퍼(Bid-Offer) 구조의 이해**: 금은방 소매가는 도매가에 마진을 붙인 가격이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 유통 마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1돈짜리 10개를 사는 것보다 10돈짜리 1개를 사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제조 원가뿐만 아니라 유통 단계에서의 마진율 구조 때문이다.
- **유동성 프리미엄**: 인증된 브랜드 골드바는 '신뢰 비용'이 포함되어 비싸지만, 환금성이 뛰어나다. 비브랜드 금은 살 때는 싸지만 팔 때 정련비를 공제당하거나 순도 검증 문제로 매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 저자는 이를 "싼 게 비지떡"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으며, 환금성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구분	1돈 (3.75g)	10돈 (37.5g)	1kg (1,000g)	저자의 추천
g당 단가	높음 (비효율)	중간 (적정)	낮음 (효율)	10돈 ~ 100g
가공비 비중	매우 높음	적정함	매우 낮음	
매도 용이성	매우 좋음	매우 좋음	다소 어려움	
보관 편의성	나쁨 (분실 우려)	좋음	매우 좋음	

## 6. 거래 채널 분석: 중매 거래와 세금 전략

이 챕터는 일반 투자자가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가장 많이 실수하는 영역을 다룬다. 저자는 다양한 구매 채널을 비교 분석하며, 왜 특정 채널을 피해야 하는지 적나라하게 폭로한다.<sup>1</sup>

### 6.1 최악의 선택: 홈쇼핑과 골드뱅크

- **홈쇼핑**: 쇼호스트의 화려한 언변과 "무이자 할부"라는 미끼에 속지 마라. 홈쇼핑 금값에는 방송 송출료, 쇼호스트 출연료, 카드 수수료, 과도한 마진이 포함되어 시세보다 20~30% 비싸다. 사는 순간 -30% 수익률로 시작하는 셈이다.<sup>1</sup>
- **골드뱅크(Gold Banking)**: 은행에서 금 통장을 개설해 g단위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편리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1. **배당소득세(15.4%)**: 매매 차익에 세금을 떼간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익이 커지면 종합소득세율(최대 49.5%)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실물 인출 비용**: 나중에 실물로 찾으려 하면 부가세 10%와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저자는 이를 "수익은 값아 먹고 세금만 늘리는 최악의 상품"으로 규정한다.<sup>9</sup>

### 6.2 최선의 선택: 중매 거래와 직거래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중매 거래(Matchmaking)** 플랫폼이다. 이는 주식 시장처럼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해주고 플랫폼은 수수료만 취하는 방식이다.

- **장점**: 금은방이 가져가는 마진(Spread)을 매도자와 매수자가 나눠 가질 수 있다. 파는 사람은 금은방 매입가보다 더 비싸게 팔고, 사는 사람은 소매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구조다.
- **세금 전략**: 개인 간 실물 금 거래(중매 거래 포함)를 통해 얻은 시세 차익은 현재 한국 세법상 **비과세**다.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점은 금 투자의 가장 강력한 매력이다. 단, 실물 구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10%)는 장기 보유를 통한 가격 상승으로 상쇄해야 하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나 중매 거래를 통해 부가세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sup>10</sup>

### 6.3 원문 인용 및 해석

"골드뱅크는 수익이 아닌 세금을 늘리고 유동성을 제한한다. 세금 부담 없는 실물 골드바에 투자하라."<sup>9</sup>

이 문장은 금융기관이 설계한 파생 상품(Paper Gold)이 아닌, 본원적 자산(Physical Asset)에 직접 투자하라는 오스트리아 학파적 조언의 실천적 적용이다.

## 7. 은(Silver) 투자: 가난한 자의 금, 혹은 숨겨진 대박

### 7.1 핵심 내용 요약: 금은비(Gold-Silver Ratio)의 마법

저자는 금이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에게 은(Silver)을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역사적으로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은 평균 1:60 내외였으나, 경제 위기나 은의 저평가 구간에서는 이 비율이 1:80 이상으로 벌어진다. 저자는 은이 산업재로서의 수요와 화폐재로서의 수요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경기 회복기와 인플레이션기 모두에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sup>4</sup>

### 7.2 실전 투자 가이드: 실버바와 관리

- **높은 변동성:** 은은 금보다 시장 규모가 작아 변동성이 훨씬 크다. 이는 위험일 수도 있지만, 상승장에서는 금 수익률을 압도하는 '베타(Beta)'를 제공한다.
- **보관의 어려움:** 은은 금보다 밀도가 낮고 가격이 저렴하여, 1억 원어치를 사면 금은 한 줌이지만 은은 수십 kg의 덩어리가 된다. 또한 공기 중 산화(변색) 문제가 있다.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물 보관 서비스가 연계된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관리가 용이한 진공 포장된 1kg 단위 실버바를 추천한다.
- **순도의 중요성 (999.9):** 은 역시 99.9%와 999.9%의 순도 차이가 환금성에 영향을 미친다. 저자는 반드시 '포나인(999.9)' 제품을 고집할 것을 주문한다.<sup>4</sup>

## 8. 4장 및 에필로그: 부의 그릇을 키우는 마인드셋

마지막으로 저자는 기술적 분석을 넘어 투자자의 태도(Attitude)를 다룬다. 금 투자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질을 깨닫고 자신의 부를 주체적으로 지키려는 철학적 결단이다.<sup>11</sup>

### 8.1 핵심 내용 요약: 태도가 부를 결정한다

- **레버리지의 위험성:** 저자는 금 투자에 빚(Leverage)을 끌어다 쓰는 것을 경계한다. 금은 이자(Cash Flow)가 발생하지 않는 자산이며, 변동성을 견뎌야 하는 장기 자산이다. 이자를 내야 하는 빚으로 투자하면 조급함 때문에 조정장에서 손절매하게 된다. 여유 자금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적립식 투자가 정답이다.
- **자산 워키프:** 자신의 자산 현황, 부채 비율, 현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저자는 이를 '나만의 자산 워키프'이라 칭하며, 금을 전체 자산의 �錨(Anchor)로 설정하고 나머지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적 사고를 요구한다.

### 8.2 에필로그: 시간과의 싸움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금은 시간을 이기는 자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다가올 화폐 시스템의 변화와 인플레이션의 파도 속에서 자신의 구매력을 보존해 줄 유일한 친구로서 금을 믿고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전한다.<sup>1</sup>

## 9. 결론 및 교수 총평

배재한의 \*\*『절대 실패 없는 금 투자』\*\*는 복잡한 수식과 난해한 경제 용어로 가득 찬 이론서가 아니다. 오히려 이 책은 저자가 건설업과 귀금속 유통업이라는 실물 경제의 최전선에서 체득한 \*\*\*생존의 지혜\*\*\*를 투박하지만 진솔하게 담아낸 현장 보고서에 가깝다.

### 9.1 이 책의 탁월함 (Strengths)

1. **실전적 구체성:** "어디서 사야 하는가?", "어떤 단위가 유리한가?", "세금은 어떻게 피하는가?" 등 투자자가 당면하는 실질적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특히 중매 거래와 골드바 단위에 대한 조언은 수백만 원의 수업료를 아껴줄 수 있는 고급 정보다.
2. **본질적 통찰:** 금을 투기 수단이 아닌 '화폐 시스템에 대한 헤지'로 정의한 점은 경제학적으로 매우 타당하다. 이는 2030년까지 이어질 거시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가 중심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준다.

### 9.2 학술적 보완점 (Limitations & Supplements)

- 저자의 2030년 금값 전망(\$8,900)은 다소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기반하고 있다. 연준의 긴축 정책이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정될 경우 금값의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금은 안전자산이지만 변동성이 없는 자산은 아니다. 따라서 저자의 조언대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10~30% 비중을 유지하되, 주식/채권/부동산과의 리밸런싱(Rebalancing)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 9.3 최종 제언

세계 최고 수준의 지성으로서 본 교수는 이 책을 \*\*\*불확실성의 시대를 건너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나침반\*\*\*으로 평가한다. 당신이 만약 땀 흘려 번 돈의 가치가 매일매일 인플레이션으로 증발하는 것에 공포를 느낀다면, 이 책은 당신에게 '진짜

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소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종이 화폐의 환상에서 깨어나 실물 자산의 성채(Fortress)를 구축하라. 이것이 2025년, 그리고 그 이후를 대비하는 유일한 길이다.

[부록: 주요 데이터 비교표]

표 1. 주요 금 투자 방법별 장단점 및 비용 분석

투자 방법	거래 비용 (수수료 등)	세금 (매매 차익)	실물 인출	추천 대상	저자 평가
실물 골드바 (소매)	높음 (부가 세 10% + 공임)	비과세	즉시 수령	장기 보유, 증여	추천 (단, 중매 권장)
중매 거래 (플 랫폼)	낮음 (개인 간 직거래)	비과세	즉시 수령	실속파 투자자	강력 추천
골드뱅크 (은 행)	보통 (스프 레드 2%)	15.4% (배 당소득세)	부가세 10% 별도	소액 적립식	비추천
KRX 금시장	매우 낮음 (0.2~0.3%)	비과세	부가세 10% 별도	단기 트레이딩	트레이딩용 추천
금 ETF (주식 시장)	낮음 (운용 보수)	15.4% (배 당소득세)	불가	주식 계좌 활용	비추천 (종이 금)
홍쇼핑/백화 점	매우 높음 (30% 이 상)	비과세	배송	정보 부족한 개인	절대 비추천

표 2. 금 vs 은 투자 특성 비교

구분	금 (Gold)	은 (Silver)
주요 용도	화폐, 가치 저장, 중앙은행 보유	산업재(반도체, 태양광), 화폐
변동성	낮음 (안정적)	높음 (투기적 성향)
경기 민감도	낮음 (위기에 강함)	높음 (경기 회복 시 상승)
부피당 가치	매우 높음 (보관 용이)	낮음 (보관 공간 필요)
저자 추천	포트폴리오의 핵심 (Core)	수익률 제고를 위한 위성 (Satellite)

[참고 문헌 및 출처]

본 보고서는 배재한의 『절대 실패 없는 금 투자』 (2025) 및 관련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1: 서지 정보, 저자 이력, 책의 목차 및 기본 정보.
- 11: 저자 유튜브 강의 내용 및 투자 철학.
- 4: 책의 핵심 주제(진짜 돈 vs 가짜 돈), 거시 경제 전망,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
- 8: 2030년 금값 전망(\$8,900) 및 포트폴리오 배분 데이터.
- 1: 실전 투자 전략(중매 거래, 단위 선택, 세금, 매도 전략) 및 거래 채널별 비교 분석.
- 4: 은 투자 및 실버바 관련 상세 내용.
- 12: 자산 관리 마인드셋 및 4장 목차 내용.